

다우지수 24,508.66 ▼76.77 | S&P 500 2,652.01 ▼10.84 | 나스닥 6,856.53 ▼19.27 | 유가 56.60 ▼0.54 | 금값 1,258.50 ▲11.60 | 코스피 2,469.48 ▼11.07 | 코스닥 770.35 ▼1.87 | 환율 1,089.10 ▼1.60

# 디즈니, 21세기 폭스 인수한다

〈영화·TV 사업 부문〉

## 총 524억달러에 합의 미디어 시장 '지각변동' 연방정부 승인만 남아

월트 디즈니가 14일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 소유의 21세기 폭스의 영화·TV 사업 부문을 524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키워 온 디즈니의 이번 메가 딜이 성사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미디어 시장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디즈니는 이번 인수를 통해 영화 아바타, X맨 등의 블록버스터 히트작을 만들어 온 21세기 폭스 영화사와 20세기 폭스 텔레비전, FX 프로덕션, 폭스 21 등의 방송사·TV 프로그램 제작사·케이블 채널 등을 보유하게 된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홀루', 유럽 위성방송 '스카이'의 최대 지분과 인도의 거대 미디어 그룹 '스타 인디아'도 품에 안게 됐다.

인수 계약의 경우 폭스 주주는 주당 디즈니 주식 0.2745주를 받게 되며 디즈니는 137억 달러에 이르는 폭스의 부채도 떠안기로 했다.

하지만 머독의 폭스뉴스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폭스스포츠 1·2, 빅텐 네트워크, 더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과 일부 스포츠 채널은 이번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디즈니와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여온 컴캐스트는 전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번 메가 딜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떠오른 넷플릭스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겠다는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의 야심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지난 8월 넷플릭스에 내어준 미국 내 스트리밍 독점권(2016~2018년 개봉작)을 거둬들이고 같은 달에는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밥테코를 인수하기도 했다.

디즈니는 이번 인수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하고 방대한 전송 플랫폼과 채널, 콘텐츠, 캐릭터를 보유한 강자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우선 마블 인수 이후 어벤저스 대원들과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할리웃 최강 캐릭터는 물론 폭스가 소유하고 있는 '엑스맨' '데드풀'의 관련까지 확보하며 마블 캐릭터를 총망라한 콘텐츠 제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방송·영화 콘텐츠 사업에 눈을 돌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디즈니가 기대하는 한 부분이다.

물론 아직 메가 딜이 완전히 성사됐다고 볼 수는 없다. 최종 관문인 정부 당국의 승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국내 2위 통신사 AT&T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하자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법무부는 타임워너가 먼저 CNN을 다른 곳에 매각해야만 AT&T의 인수·합병 계약을 승인해주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2019년 은퇴 예정이던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도 연장되며 2021년까지 폭스와의 인수 작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또 루퍼드 머독은 폭스를 디즈니에 매각한 이후 디즈니 주식의 5%만을 보유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 디즈니, 21세기폭스 인수



**남주한인부동산협회 송년의 밤** 남주한인부동산협회는 지난 13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017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마크 홍 회장은 미셸 박 스틸 OC 수퍼바이저 위원장의 감사패를 받으며 이임했고, 피터 백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피터 백(앞줄 왼쪽) 회장과 마크 홍 회장이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악수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 LA항·롱비치항 물동량 올해 사상 최대 갱신할 듯

**작년보다 6~10% 늘어**

LA항과 롱비치항이 올해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LA항의 경우, 이미 지난달 월간 물동량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올린데 이어 두 항구 모두 1~11월 누적 기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14일 LA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달 LA항을 통해 움직인 물동량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5.3% 증가한 92만4,225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로 110년 LA항 역사상 월간 물동량으로는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수입은 6.1% 늘어난 46만 3,690TEU, 수출은 0.3% 증가한 17만7,913TEU를 기록했으며 빈 컨테이너 운송도 74%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LA항만청의 진 세로카 청장은 "지난달 LA항에 접안한 4척의 컨테이너선이 각각 2만3,000TEU

이상을 선적하거나 하역했다"며 "10월 세웠던 기존 신기록 2만 4,308TEU에 근접한 것으로 지난 달 전체 물동량은 최대 기록이었다"고 전했다.

LA항은 올해 1년을 통틀어 전체 물동량 900만TEU 신기록을 세우는 서반구 최초의 항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올해 1~11월 누적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했다.

롱비치항도 지난달 물동량이 지난해 11월에 비해 14.7%나 늘어나 61만2,659TEU를 기록했고, 올해 1~11월 누적 물동량 증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롱비치항 측은 "할리데이 샤피 시즌을 맞아 소매업체들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달 전체 수입은 18% 증가한 31만9,210TEU, 수출은 4.5% 늘어난 12만6,364TEU, 빈 컨테이너는 17% 많아진 16만 7,085TEU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 '세계개편안 지연 우려' 증시 내림세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공화당의 세계개편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다.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76.77포인트(0.31%) 하락한 24,508.66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4포인트(0.41%) 내린 2,652.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27포인트(0.28%) 낮은 6,856.53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24,672.48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발표된 지난 1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연말 사평시즌 덕분에 시장예상을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방상무부는 1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치는 0.3% 증가였다.